

세계 최고의 음향 전문 스튜디오,

'라이브톤'

봉준호감독의 기생충이 올해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 영화 시상식의 인정을 받았다. 그 가운데 영화의 사운드 편집을 맡은 국내 스튜디오 '라이브톤'이 미국의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사운드 편집 기술상을 받아 화제다. 고양시에 소재한 국내 최고의 영화 음향 전문 스튜디오 라이브톤. 설레는 마음으로 직접 라이브톤의 최태영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글/사진 차정호(고양시 소셜기자단)



Q. 대한민국 최고 작품들(괴물, 변호인, 명량, 부산행, 신과함께 시리즈, 기생충 등)과 함께한 라이브톤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라이브톤은 1997년 창립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운드 음향을 위한 후반 작업을 담당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Netflix), VR, AR, 게임사운드, 핸드폰 효과음 등 사운드가 필요한 모든 미디어의 후반 작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영화라는 장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라이브톤이 영화 음향 전문 스튜디오인데 정확히 영화 음향이 무엇인가요?

A. 음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TV, 스크린에서 시청하거나 관람할 때 들을 수 있는 최종적인 사운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들이 하는 대사가 있고 인물이 걸어가는 발소리라던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등의 효과음(Foley)도 있죠. 또 주변 환경에 따른 현장음을 만드는 작업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운드 디자인이 필요한 작업들, 예를 들어 영화 '옥자'의 크리쳐 사운드 소리, '괴물'의 소리 등도 음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국내외에서 최고의 영화 음향 전문 글로벌 스튜디오로 성장했습니다. '라이브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이브톤의 핵심가치는 '사운드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귀로 듣긴 하지만, 결국 가슴에서 정서적으로 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유하자면 귀로 듣는 것을 기술이라고 본다면 가슴을 울리는 건 사운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정서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사운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Q. 2009년에 브로맥스타워3로 스튜디오를 이전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양시로 이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09년도에 고양시가 저희에게 유치 제안을 주셨어요. 영화후반 작업 업체들과 영화 제작 사무실 등이 함께 유치된다고 했기 때문에 집약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스튜디오를 이전했습니다. 영화업체들 간의 시너지 효과 뿐만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하기에 고양시의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출퇴근하기 용이하고, 영화업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시에서 영화사업체들을 지원해줘 영화 제작사와 저희 같은 후반 작업 업체들은 더 좋은 작업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희는 고양시에서 영화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자문을 드린다거나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혁신적인 비주일에 아티스트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더하여 독창적이고 객관적인 사운드 스토리텔링을 완성합니다' 회사 소개의 가장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라이브톤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요?

A. 과거 우리나라의 음향 산업 같은 경우 정말 기본적으로 귀에 들리는 사운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k-pop이 글로벌화되고, 유명 감독들이 세계로 나가면서 한국적인 사운드에 대한 정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구현하려면 사운드 아티스트의 상상력, 창의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청년 세대는 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상상하고 구현해낼 의지가 있는 인재가 라이브톤이 필요한 상상력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Q.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고 고양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계속해서 세계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자회사인 텍스터와 함께 세계의 흐름을 읽으면서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기술지향적인 태도도 가져가야겠죠.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고양시민께서 라이브톤을 비롯한 메이저급 방송영상 관련 회사들이 고양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고양시에서 작업을 마친 영화나 드라마, 영상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시의 문화 관련 정책과 시민분들의 든든한 응원이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